2022년 8월 11일

KIWOOM Daily

■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Strategist 한지영** 02)3787-5241 hedge0301@kiwoom.com
**RA 김지현** 02)3787-3761 jeehyun12@kiwoom.com

# 미 증시, 7월 CPI 호재에 힘입어 급등

## 미국 증시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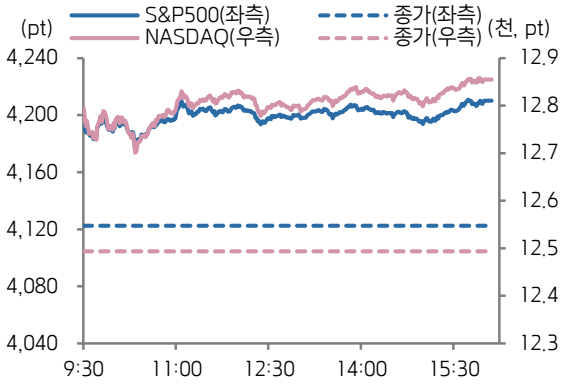
10일(수) 미국 증시는 7월 소비자물가 발표 이후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감, 시장 금리 하락, 달러 약세 등이 출현함에 따라 성장주를 중심으로 위험선호심리가 강화되면서 급등 마감 (다우 +1.63%, S&P500 +2.13%, 나스닥 +2.89%)

미국 7 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기대비 8.5% (예상치 8.7%, 전월치 9.1%) 상승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 하회. 전월대비로는 0.0%(예상치 0.2%, 전월치 1.3%) 기록. 근원 소비자물가지수는 5.9%(예상치 6.1%, 전월치 5.9%) 상승하며 전월치에 부합. 식료품, 주택 임대료 항목 상승세는 지속되었으나, 휘발유 등 에너지 가격, 항공료, 중고차 가격이 큰폭 하락한 것에 기인.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이후 물가 피크아웃 및 8 월 소비자물가지수, 잭슨홀 미팅까지 대형 매크로 이벤트가 부재한 영향에 안도감 확산되며 나스닥 강세, 미 국채 10 년물 및 2 년물 금리 하락, 달러 인덱스 하락 등 위험 선호 심리 부각. Fed Watch 9 월 FOMC 50bp 금리 인상 확률은 전일 30%대에서 56%까지 상승.

한편, 연준 위원들의 발언은 다소 매파적.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는 '7 월 CPI 상승률의 둔화는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물가는 높은 수준이며, 연준의 목표 인플레이션인 2%로 되돌리기 위해 내년까지 3.75%~4% 수준까지 금리 인상을 지속해야 한다'고 언급.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연준은 인플레이션 둔화에 대한 더 강력한 신호를 원하기 때문에 금리는 현 2.25%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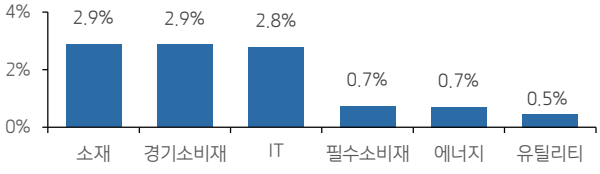
전업종이 급등한 가운데, 소재(+2.9%), 경기소비재(+2.9%), IT(+2.8%) 업종의 상승폭이 가장 컸고, 유틸리티(+0.5%), 에너지(+0.7%), 필수소비재(+0.7%) 업종의 상승폭이 가장 작았음. 엔비디아(5.92%), 마이크론(3.8%), AMD(3.67%) 등 전일 급락했던 IT 기술주가 물가 안정 기대 및 금리 하락으로 반등에 성공. 전일 실적 우려로 급락한 로블록스는 시장예상치보다 높은 손실을 기록했음에도 불구, 예상보다 작은 적자폭을 기록한 유니티가 10%대 급등하며 메타버스 관련주도 반등 성공. 일론 머스크가 약 69 억달러 규모의 테슬라 지분을 매도했지만 테슬라 역시 4% 상승. 오늘 실적을 발표하는 디즈니는 영업적자 우려에도 가격인상 발표 및 3분기 구독자 수 증가 기대로 4% 상승.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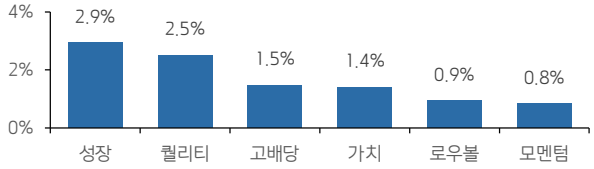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주요 지수

| 주식시장 | | | 외환시장 | | |
|---|---|---|---|---|---|
| 지수 | 가격 | 변화 | 지수 | 가격 | 변화 |
| S&P500 | 4,210.24 | +2.13% | USD/KRW | 1,310.45 | +0.46% |
| NASDAQ | 12,854.80 | +2.89% | 달러 지수 | 105.23 | -1.07% |
| 다우 | 33,309.51 | +1.63% | EUR/USD | 1.03 | +0.01% |
| VIX | 19.74 | -9.32% | USD/CNH | 6.72 | +0.03% |
| 러셀 2000 | 1,969.25 | +2.95% | USD/JPY | 132.88 | -0.01% |
| 필라. 반도체 | 2,988.71 | +4.25% | **채권시장** | | |
| 다우 운송 | 14,975.07 | +3.09% | 국고채 3 년 | 3.150 | +2bp |
| **유럽, ETFs** | | | 국고채 10 년 | 3.200 | +4.8bp |
| Eurostoxx50 | 3,749.35 | +0.91% | 미국 국채 2 년 | 3.214 | -5.5bp |
| MSCI 전세계 지수 | 649.75 | +1.89% | 미국 국채 10 년 | 2.781 | +0.4bp |
| MSCI DM 지수 | 2,743.62 | -0.55% | **원자재 시장** | | |
| MSCI EM 지수 | 1,001.69 | -0.01% | WTI | 91.93 | +1.58% |
| MSCI 한국 ETF | 61.58 | +1.32% | 금 | 1813.7 | +0.08% |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

check

##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 | |
|---|---|
|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 MSCI 한국 지수 ETF 는 +1.32%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1.25%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1.03%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296.99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3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
| **주요 체크 사항** | 1. 미국 7 월 CPI 결과가 국내 증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br>2.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급등(+4.3%)이 국내 반도체주 반등 동력을 제공할 지 여부<br>3. 역외 원/달러 환율 급락에 따른 외국인 순매수 강도 변화 |

##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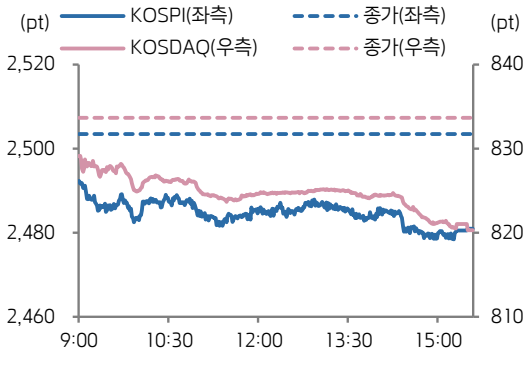
미국의 7 월 소비자물가(8.5%YoY)는 전월(9.1%) 및 예상치(8.7%)를 하회했으며, 전월(5.9%)에 비해 높게 나올 것으로 생각했던 근원 소비자물가(5.9%)도 예상치(6.1%)를 하회했다는 점을 시장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양상. 전세계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국의 생산자물가(4.2%, 예상 4.9%)도 전월(6.1%)에 이어 하락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 했을 가능성이 유력해 보임. 이로 인해 CME FedWatch 상 9 월 FOMC 75bp 금리인상 확률도 68%대에서 42%대로 하락하는 등 9 월 자이언트스탭 가능성도 후퇴하는 등 위험선호심리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

이처럼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이 유력해진 가운데, 물가 관련 이벤트가 8 월말 잭슨홀 미팅(25~27 일)까지는 부재하므로 당분간 주요국 증시는 주가 복원력이 이어지는 중립 이상의 흐름을 연출할 것으로 전망. 그러나 생각해볼 점은 인플레이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며, 이제서야 피크아웃 문제를 통과하고 있는 것일 뿐이지 본질적인 해결 단계인 인플레이션 레벨다운(=인플레이션 통제 성공)에 도달하기까지는 시간이 상당기간 소요된다는 것임. CPI 발표 직후 시카고 연은 총재가 해당 지표 결과를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내년까지 금리인상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는 점 역시 같은 맥락.

또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상황 속에서 10 일 애틀랜타 연은의 3 분기 GDP 추정치가 기존 +1.4%에서 +2.5%로 상향 됐다는 점은 긍정적이긴 하지만, 고 인플레이션에 따른 실질 구매력 약화, 금리 인상 부담 누적 등으로 성장 훼손에 대한 민감도도 여전히 높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 주요 산업에서의 수요 부진도 매크로 환경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향후에도 주식시장은 매크로 영향권에서 머물러 있을 것으로 전망. 더 나아가, 7 월 미국 CPI 하락에 큰 기여를 했던 품목이 에너지(6 월 60.6%→7 월 44.9%) 가격 급등세 진정에서 주로 기인했던 만큼, (8 월말까지 인플레이션 지표 이벤트가 부재함에도) 국제 유가 흐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이 적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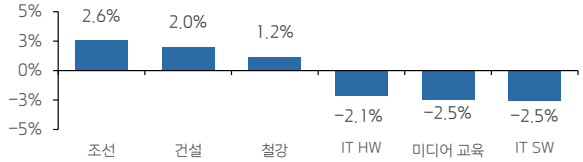
금일 국내 증시도 미국과 중국의 인플레이션 급등세 진정, 성장주를 중심으로한 나스닥 급등, 원/달러 환율 급락(현재 역외에서 10 원이상 하락) 등에 힘입어 대형주를 중심으로 외국인 수급 여건이 호전되면서 상승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 국내 옵션 만기일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장중 현선물 수급 변동성은 상존할 것으로 보이나, 우호적인 매크로 환경에 힘입어 전반적인 증시는 견조한 흐름을 전개할 전망. 더 나아가, 전방 수요 부진 및 재고 리스크에도 미국 반도체주(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4.3%)들이 바닥권 인식에 힘입어 동반 급등세를 연출했다는 점은 전거래일 마이크로 가이던스 하향으로 조정을 받았던 국내 반도체 업종의 센티먼트 회복에 기여할 전망.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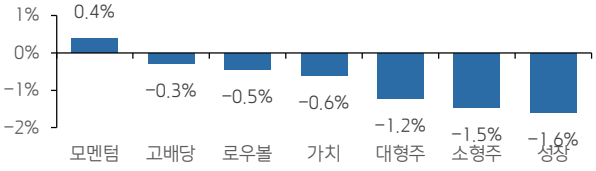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Quantiwise, Fnguid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